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달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nia.com/mem/hanmaum

## 법공양 페이지

# 한 몸뚱이서 수많은 생명 더불어 살죠

15면에서 계속

있어서 그 나라를 한데 포함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 중에 한 나라만 없어져도 이 전체 세계가 다 죽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다 죽어요. 그러니 어찌 내가, 내 고택이 내가 나라고 하면서 뽐내겠습니까? 뽐낼 거 하나도 없죠. 내가 당당히 홀로 섰다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홀로가 아니라 한마음으로 구성된 동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체 속에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주는 선정이 있고, 그 나머지는 움직여지는데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끌어다쓰

옛날 부처님 당시의 방편으로 말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잘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현재의 사람은 현대말, 현재말을 해야지 어떻게 삼천년 전에 썼던 말을 그대로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지금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높다 낮다 이런 걸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토론하는 생각으로써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기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안다고 아만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뺏듯이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도 그럴 게 없어

배, 후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번 돈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주위사람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내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주인공에 맡기는 직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실천이 되는 것에 대해 제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해외연수를 상당히 원했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회사에서 3개월간 가계 됐습니

하는 것은 비는 게 아닙니다. 바깥으로 찾는 게 비는 것이고 기복이 내 안에 주인공을 찾는 것은 한마음으로써 중심에 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원을 세운 그 마음 한 생각이 입자로 화해서, 즉 말하자면 통신이 되면 첫째, 한 할나에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그 모든 입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재각이 또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일을 한다면, 말을 해서 될 일이라면 그렇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하고 전부 각각 이렇게 나가서

냥 구덩이에 빠지게 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내 한생각을 잘해서 부모를 건지고 자식을 건지고 세세생생에 건질 수 있다면, 정말 똥을 누나, 잠을 자나, 밥을 먹을 때나 항상 주인공 생각만 하면 거기 다 놓는 작업을 아니하고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 내가 삼천배를 울리고 기도를 하고 또는 며칠을 목욕재계를 하고 정성을 드려야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부드럽게 말이 나가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오겠습니다. 자기가기 때문에, 전자가 나자랐던 자기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예 자기 그릇만 생각하고 '이후 저거는 그냥 천리만리 모자라 하고 생각을 했다' 아예 모가 나죠. 외면이 되고, 그러니까 사랑을 할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하셔서 자동적인 오신종중에 제일 중심에 속명통이라는 그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속명통의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거기에 입력되는구나. 그러면 스스로서 거기다가 또 맡기면 입력된 게 자꾸자꾸 없어지면서 새 물로 화하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대로 자꾸 화해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새 걸로만 자꾸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러

- 모든 것은 자기중심 자기 뿌리에 감사하고 슬기롭게 굴러갈 때 통신이 돼요

### 한생각 잘해 주인공에 맡기면 조상과 나 그리고 자식 전져 세세생생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뜻이 용도에 따라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팔만대장경을 여러번 읽어도, 그걸 줄여서 놓은게 (반야심경)입니다. 그 반야심경을 더 줄이면 '불심'입니다. 불심! 아주 간단하게 '마음'이예요. 마음! 천차만별의 그 벌어지는 일들이 마음 하나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원하게 한판치고 울든, 한판치고 웃든, 그냥 여러분도 즐 그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깨우친다, 성불한다. 뒤견성한다 이런 건 다 마음이에요.

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더 숙여져요. 아주 푸르렀을 때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땃땃하죠. 그러나 살아나가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에 대해서 서로 토론한다면 참 좋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말을 해도 아니되고 또 안다고 해도 아니되고, 말을 하면 오해려 잘못된다 이러지만, 허- 여러분이 말을 해도 말을 한 사이가 있습니까? 금방 이 말 했다가 저 말로 돌아가는데 무슨 말을 하는 사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까? 더불어 같이 해야할 수 없는 생명이란 말이 있어요. 한 가지 지 자기 혼자 말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공했다 이런 겁니다. 공해서 한 사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림 · 최주현

그러서 그렇게 죽은 사람, 병원에 간 사람, 또 살 양으로 바들바들하고, 또 살 리라고 아동바둥하고 그러는 거를 나는 말이 보여왔습니. 개미굴이나 또는 개 구리들이나 뽕소굴이나 여러 벌레들 소굴이 잠마가 들어서 산이 무너지거나 이 런다면, 우리 사람이 대항하고 냐다고 하듯이 그네들도 온통 난리가 납니다. 난리를 벌이는데 똑같은요, 아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은지 몰라요. 다리 부러지는 것도 그냥 끌고 가고, 목 떨어진 것도 끌고 가고 그렇다. 개구리도 청자가 쪽 뻗어서 나왔는데도 그냥 업고 가고 말입니다. 똑같은요, 크고 작을 뿐이지, 그러나 모습과 차원은 천차만별로 다른지언정, 어찌 생명과 더불어 사는 도리는 다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나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나라. 공색이 공색이 둘이 아니나라.'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땀해야 땀 수 없는 부분

다. 그럴때도 '애 왜 이렇게 실천이 잘 되는 거?' 하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제가 연수를 가게 되면 그동안은 법회에 참석할 기회가 없지만 책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공부해서 연수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서 저 자신과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원을 내고 있습니다. 원을 내면서 또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기복 신앙과 원을 내는 것의 차이점인데, 제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과연 진짜 자성불에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복으로 써 그냥 원하고 자성불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혼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시오.

## 스스로 구족해 있으니 통신해 쓰도록 자성삼보 귀의가 곧 불법승 삼보귀의

우리가 사람으로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말고, 중천세계에서 마음을 걸어서 중심을 잘 뒤라, 중심을 두게 되면, 중용을 하게 되고 중용을 하게 되면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러면 세세생생에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않고, 하천세계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는 어버이로서 등장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금이 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마다 나는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 사는 게 삶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말입니다. 홀 흐르는 걸 내려다보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수없는 마음이 저를 흘러가는 것과 같은데 어찌 칼로 찍 끊으리까. 끊으라고 하는 것은 말일 뿐이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나오는 피리가 피리를 물고, 피리가 피리를 물고 나오는 그 마음을, 화해서 찰나찰나 나오는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하며 어떻게 끊으리까. 그때부터 '아, 끊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이 바로 더불어 같이 녹이는 거로구나'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나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나라. 공색이 공색이 둘이 아니나라.'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땀해야 땀 수 없는 부분

이. 그래서 공색이 공색을 정말 발견한다면, 공색과 공색은 둘이 아닌 까닭에 그 몸이 그렇게 크니라. 그래서 몸을 보고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 몸을 보고는 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소임을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부적인 모든 일체를 다 구족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구족하게 가지고 있던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족한 것을 알고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당신네들한테 구족하게 다 있으니 그렇게 통신이 되게 해서 써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되고 배꼽이냐? 그러니 판 사람이 지금 속마음으로 저 사람을 한번 쫓아버려야겠다 이런다면, 벌써 이쪽에서 '흥! 코방귀 탁 끼고 자기는 몰라도 본래 자기 속에서는 벌써 알고 흥! 날 죽여?' 그러구선 오히려 그쪽으로 동뚱이가 들어가죠. 그러는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그걸 알고서도 자비스러우면 동뚱이로 들어가게는 배째 알고 흥! 그런 실의에 되빠져가지고 그런 마음을 버리고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수도 있죠.

우리의 몸 속에 들어있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데 잘되는 것은 주인공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잘못되는 것은 '너 속에서 나온 거니까 내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가 바라 이릅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역대의 부모가 나 하나로 인해서 건져지고, 둘째는, 자기의 2세대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이 건져지고 셋째는 조상과 나 그리고 자식 이렇게 3대가 다 세세생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바탕이 생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도리를 우리가 모르고 간단히 안되죠. 삼세계·중세계·하세계가 있다면 우리 중세계에서 마음에 따라서 체로 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세계로 떨어뜨리고, 상세계로 올리고 중세계에 그냥 남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물건도 그렇고 종자들도 그렇듯이 이런 업연한 사실입니다.

기복신앙과 원을 내는것 차이  
[문] 저는 대구지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서 뜻으로 풀어놓은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보면서 어떤 때는 무슨 소린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형제 법회라든가 또는 책이나 테이프, 그리고 도반들과 얘기를 함으로써 궁금증이 풀리기도 합니다. 특히 스님께서 직접 쓰신 글에다 곡을 붙인 선법가를 접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자성불이 있다는 그 말씀은 저한테 생명의 귀한 선물이라고 믿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많이 적용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서 공색이 공색을 정말 발견한다면, 공색과 공색은 둘이 아닌 까닭에 그 몸이 그렇게 크니라. 그래서 몸을 보고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 몸을 보고는 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나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나라. 공색이 공색이 둘이 아니나라.'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땀해야 땀 수 없는 부분

우리의 몸 속에 들어있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데 잘되는 것은 주인공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잘못되는 것은 '너 속에서 나온 거니까 내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가 바라 이릅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역대의 부모가 나 하나로 인해서 건져지고, 둘째는, 자기의 2세대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이 건져지고 셋째는 조상과 나 그리고 자식 이렇게 3대가 다 세세생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바탕이 생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도리를 우리가 모르고 간단히 안되죠. 삼세계·중세계·하세계가 있다면 우리 중세계에서 마음에 따라서 체로 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세계로 떨어뜨리고, 상세계로 올리고 중세계에 그냥 남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물건도 그렇고 종자들도 그렇듯이 이런 업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예전에 월급을 받을 때는 금액이 좀 적다 싶으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거 밖에 안주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금액이 좀 높으면 '내가 잘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또 세금을 많이 댈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조세 체도에 대해서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법문 중에서 '돈을 벌어도 내기 번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아, 이것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내 동료들과 선

이. 그래서 공색이 공색을 정말 발견한다면, 공색과 공색은 둘이 아닌 까닭에 그 몸이 그렇게 크니라. 그래서 몸을 보고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 몸을 보고는 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나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나라. 공색이 공색이 둘이 아니나라.'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땀해야 땀 수 없는 부분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나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나라. 공색이 공색이 둘이 아니나라.'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땀해야 땀 수 없는 부분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나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나라. 공색이 공색이 둘이 아니나라.'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땀해야 땀 수 없는 부분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나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나라. 공색이 공색이 둘이 아니나라.'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땀해야 땀 수 없는 부분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나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나라. 공색이 공색이 둘이 아니나라.'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땀해야 땀 수 없는 부분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나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나라. 공색이 공색이 둘이 아니나라.'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땀해야 땀 수 없는 부분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나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나라. 공색이 공색이 둘이 아니나라.'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땀해야 땀 수 없는 부분

니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 수 있었습니까? 아마 누구든지 이러한 경험 안해 본분들은 이렇게 좋다고,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다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공부에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문] 큰스님께서서는 저희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저희들이 잘 못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모든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놓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큰스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답] 감사해요. 어떤 때는 부처님 법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만들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조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있으면 '안과 밖을 둘 아니게 조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자꾸 바꾸어서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복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모두 감음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면, 바로 내 자아궁처에 처해서 바깥과 안세상을 둘 아니게 조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놓듯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 중심에, 자기 뿌리에,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맡기고, 감사하게 맡기고, 또 슬기롭게 맡기고, 또 굴러서 맡기고 이런다면 통신이 되죠. 사대가 다 통신이 돼요. 그러면 안과 밖이 모자라는 건 채우고 너무 넘치는 것은 제거하고 이러면서 잘 이끌어 가죠.

어떤 사람은 누가 큰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 돈 얼마만 가지고 들어오면 다 잘 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허락을 안하더라고요. 돈은 벌어야겠고 아주 딱한 처지인데 허락을 안하니까 그만 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서는 사기를 치고 없어져버렸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빼놓고는 믿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을 데가 있고 자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데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공색이 공색이 붙어있듯이 여러분 몸 속에도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해롭지 않게 이끌어 가고, 슬기롭게 이끌어 가고, 또는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러죠.

하여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원히 위해서, 또는 그 영원한 것을 알기 위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삶의 보람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몸 통속에서 벗어나야 이 지구통 속에서 벗어나고, 지구통 속에서 벗어나면 이 모든 공가통 속에서 벗어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자유권을 가질 수 있는 자유인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 한마음

생각에 보십시오. 이 모습을 가지고 몇알정이나 살았습니까? 요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세생생을 살게 하느냐, 아예 그